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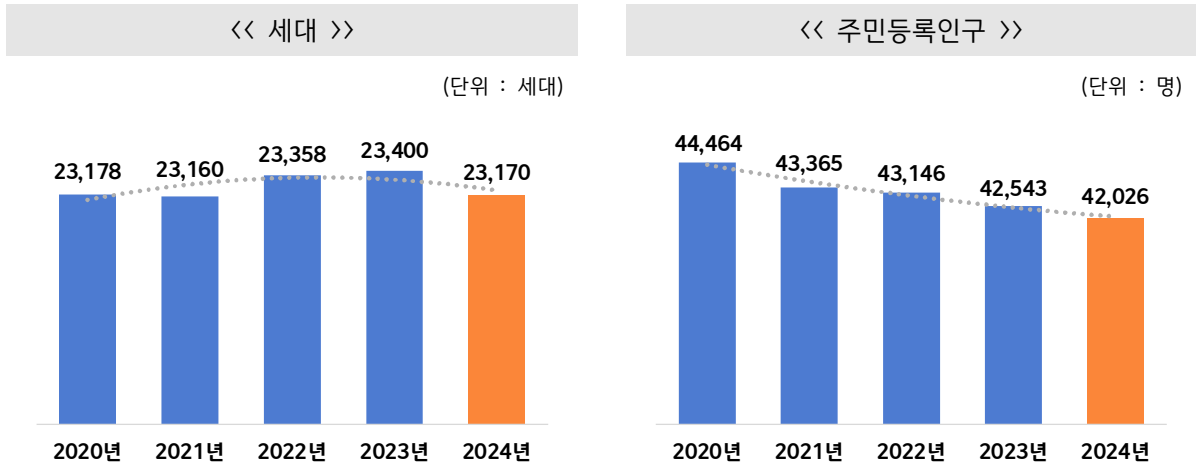
Part 3

2025 주요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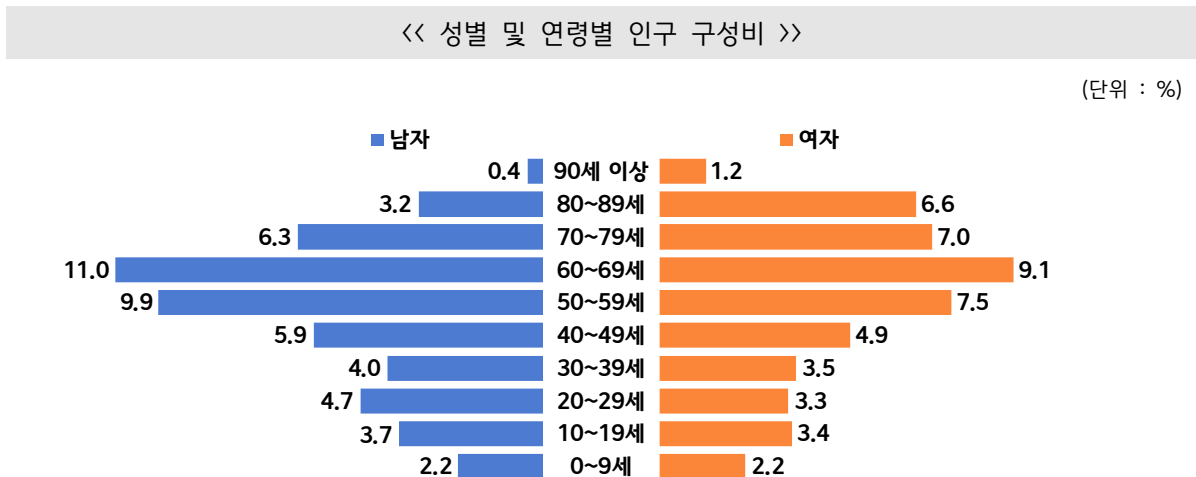
- 1 인구 항목
- 2 공통 항목
- 3 전라남도 항목
- 4 장성군 특성 항목

1. 인구 항목

- ▶ 2024년 장성군의 '세대' 수는 23,170세대로 전년(23,400세대) 대비 230세대 감소함
- ▶ 2024년 장성군의 '주민등록인구'는 42,026명으로 전년(42,543명) 대비 517명 감소함
- ▶ '남자'는 21,548명으로 전년(21,892명) 대비 344명 감소하고, '여자'는 20,478명으로 전년(20,651명) 대비 173명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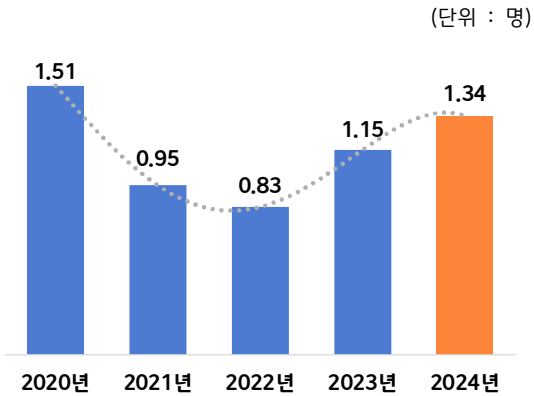


- ▶ 장성군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0~69세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함. 이어서 50~59세(17.4%), 70~79세(13.3%) 순으로 나타남
- ▶ 6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남자'의 비중이 더 높거나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 70세 이상부터는 '여자'가 '남자' 대비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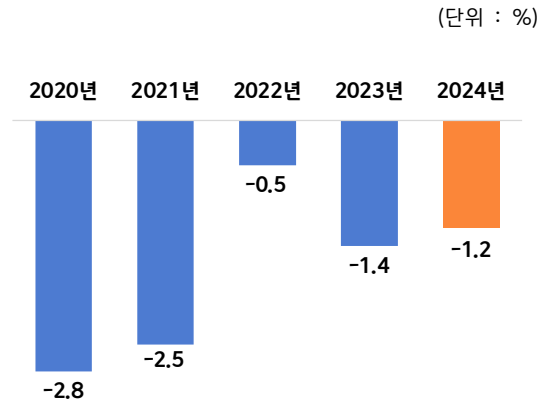


- ▶ 2024년 장성군의 ‘(잠정)합계출산율’은 1.34명으로 전년(1.15명) 대비 0.19명 증가함.
‘(잠정)합계출산율’은 2022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 ‘인구성장률’은 -1.2%로 전년(-1.4%) 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2020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 합계출산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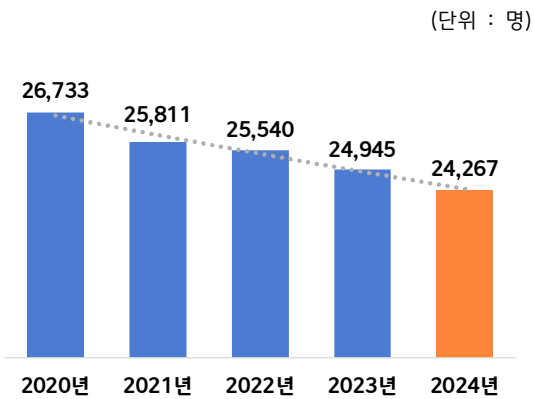


<< 인구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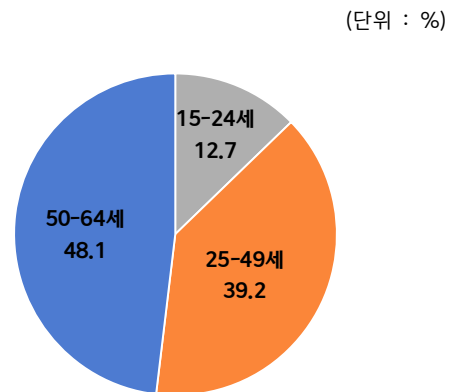


- ▶ 장성군의 생산가능인구는 24,267명으로 전년(24,945명) 대비 678명 감소함
- ▶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0~64세’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49세’(39.2%), ‘15~24세’(12.7%) 순으로 나타남

<< 생산가능인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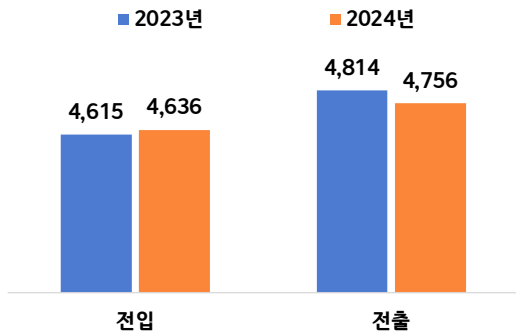
<<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



- ▶ 장성군의 ‘전입’ 인구는 4,636명으로 전년(4,615명) 대비 21명 증가함. 2023년까지 ‘전입’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 처음으로 증가함
- ▶ ‘전출’ 인구는 4,756명으로 전년(4,814명) 대비 58명 감소함
- ▶ 장성군의 순이출 인구는 120명으로 나타남. 장성군의 ‘순이동률’은 -0.3%로 전년(-0.5%) 대비 0.2%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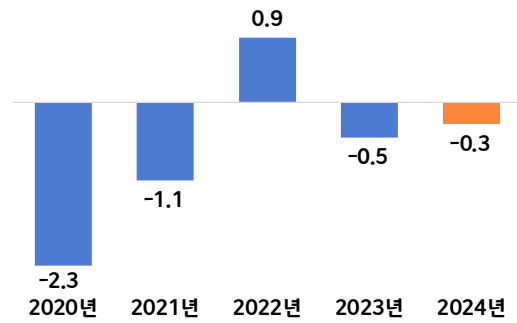
<< 전입 전출 인구 >>

(단위 : 명)



<< 순이동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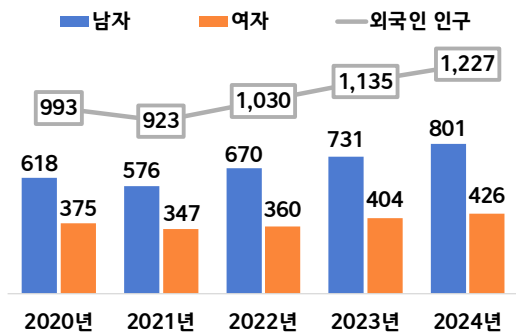
(단위 : %)



- ▶ 2024년 '외국인 인구'는 1,227명으로 전년(1,135명) 대비 92명 증가함. 외국인 '남자' 수는 801명, '여자' 수는 426명으로 나타남
- ▶ 국적별 외국인 인구는 '베트남'이 3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캄보디아'(195명), '스리랑카'(136명)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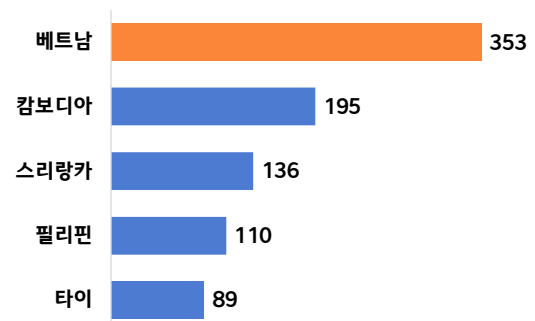
<< 성별 외국인 인구 >>

(단위 : 명)



<< 국적별 외국인 인구(상위 5개국)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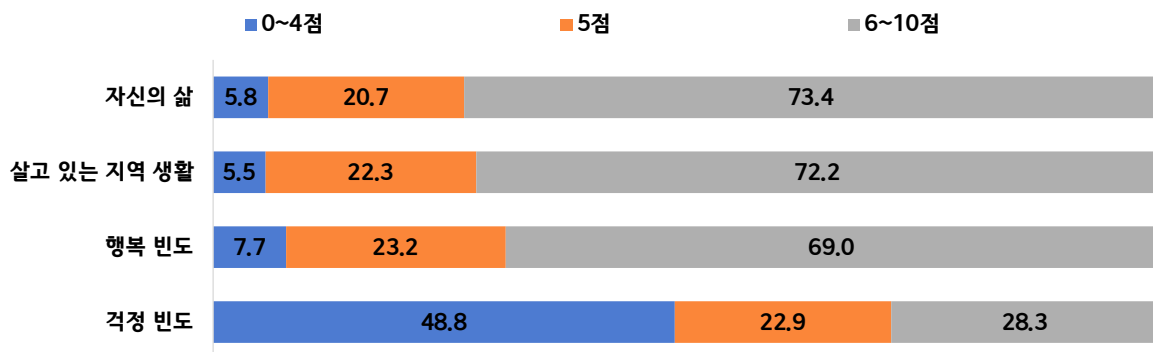
2.

공통 항목

- ▶ 자신의 삶에 ‘대체로 만족(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3.4%, 살고 있는 지역 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6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72.2%로 나타남
- ▶ 행복 빈도에 대해 ‘대체로 행복(6점 이상)’하다고 응답한 군민은 69.0%, 걱정 빈도에 대해 ‘대체로 걱정하지 않음(4점 이하)’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8.8%로 전년(58.3%) 대비 9.5%p 감소함

<< 삶에 대한 만족감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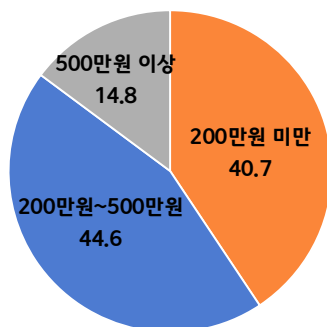
(단위 : %)



- ▶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59.4%로 나타남.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14.8%로 전년(18.1%) 대비 3.3%p 감소함
- ▶ 지역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서부권(66.3%)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북부권(44.0%)이 가장 낮게 나타남
- ▶ 성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남자’의 비율은 70.3%, ‘여자’의 비율은 33.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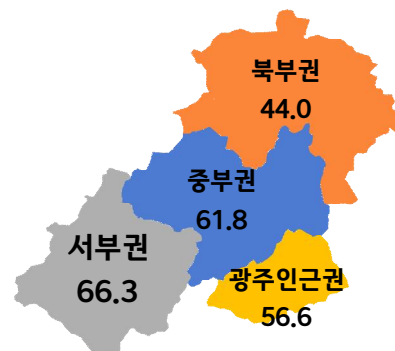
<< 가구 월평균 소득 >>

(단위 : %)



<< 지역별 가구 월평균 소득(200만원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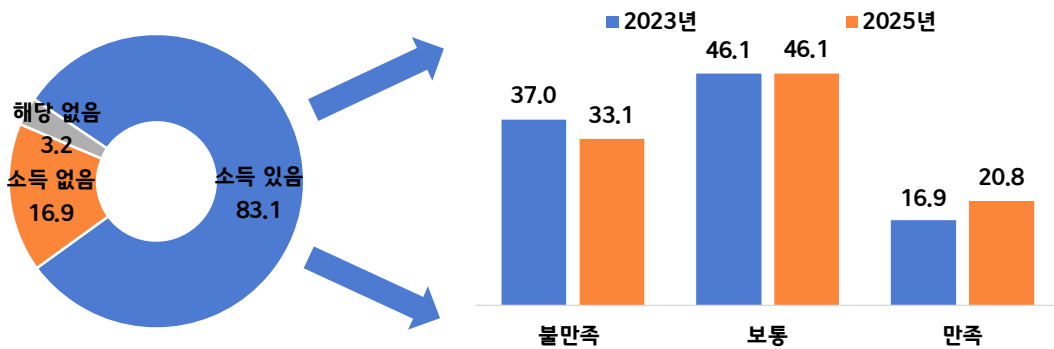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군 군민의 83.1%가 '소득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소득 없음'은 16.9%, '해당 없음'은 3.2%로 나타남
- ▶ 소득이 있는 군민 중 20.8%는 현재 소득에 '만족', 46.1%는 '보통', 33.1%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함. '만족' 응답 비율은 2023년(16.9%) 대비 3.9%p 증가함
- ▶ 소득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가 24.4%로 여자(16.1%)보다 8.3%p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59세가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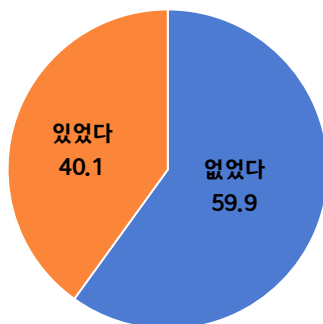
(단위 : %)



-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에 대해 '별로 없었다'(40.2%), '가끔 있었다'(32.3%), '전혀 없었다'(19.7%), '매우 자주 있었다'(7.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북부권에서 46.7%로 가장 높았고, 중부권(40.8%), 광주인근권(39.7%), 서부권(34.8%) 순으로 나타남
- ▶ 성별의 경우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자가 42.4%, 남자가 37.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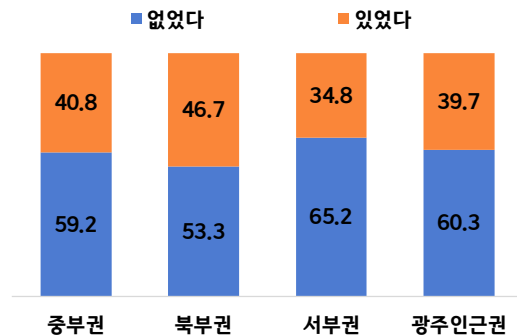
<<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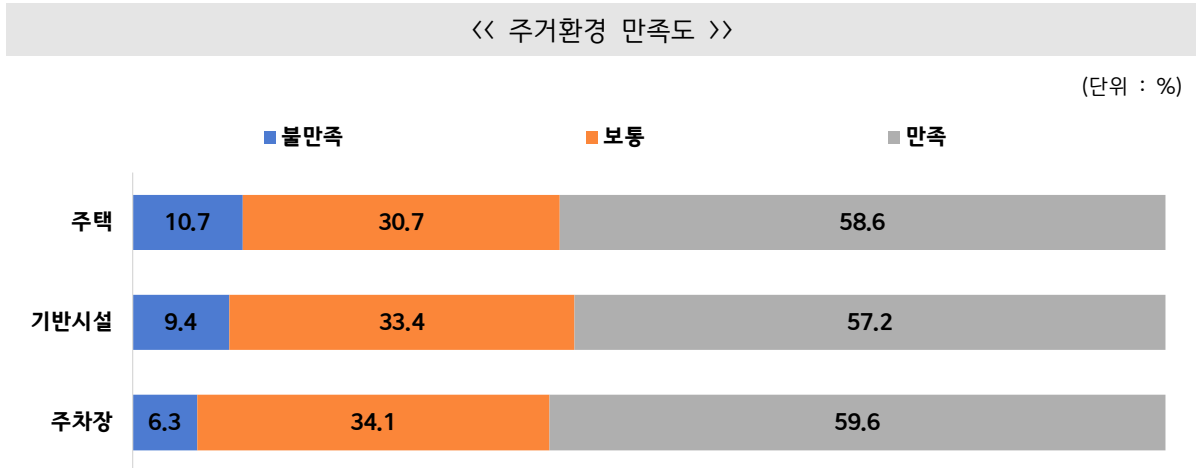


<< 지역별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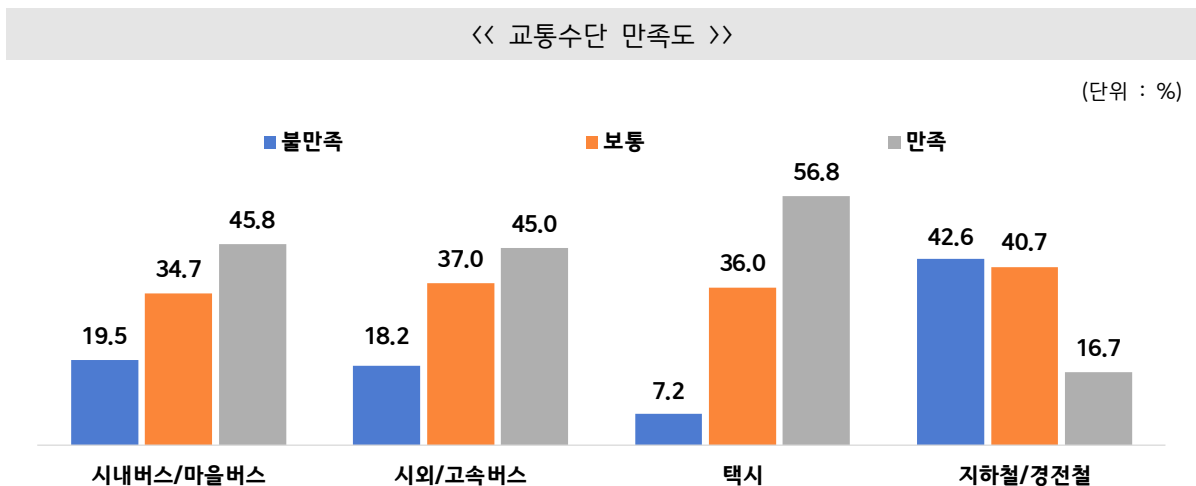
(단위 : %)



- ▶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서 '만족'의 응답이 '불만족'보다 높게 나타남.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주차장(59.6%), 주택(58.6%), 기반시설(5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2023년 대비 2025년 장성군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모두 증가하였고, '만족'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주차장으로 2023년(46.7%) 대비 12.9%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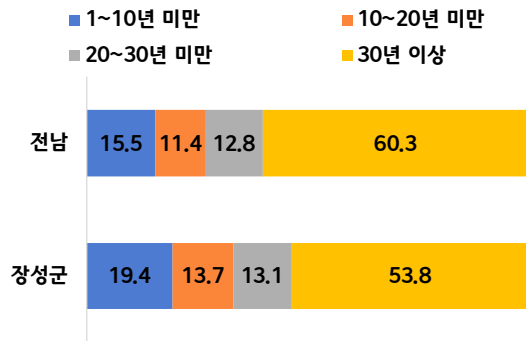
- ▶ 장성 군민의 교통수단 만족도 각 문항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택시가 56.8%로 가장 높았고, 시내버스/마을버스(45.8%), 시외/고속버스(45.0%), 지하철/경전철(16.7%) 순으로 나타남
- ▶ 2023년 대비 2025년 교통수단 만족도는 모두 증가하였고, '만족'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교통수단은 택시로 2023년(50.6%) 대비 6.2%p 증가함
- ▶ 중부권의 '만족' 비율은 택시 67.1%, 시내버스/마을버스 59.7%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 수준을 보임



- ▶ 전남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인 군민은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장성군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인 군민은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10년 후 전남 정주 의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74.1%로 나타남. 10년 후 장성군에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2023년(69.6%) 대비 4.9%p 증가한 74.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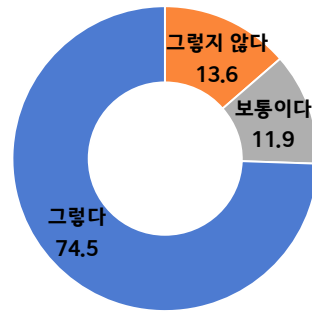
<< 거주기간 - 전남, 장성군 >>

(단위 : %)



<< 10년 후 정주의사 - 장성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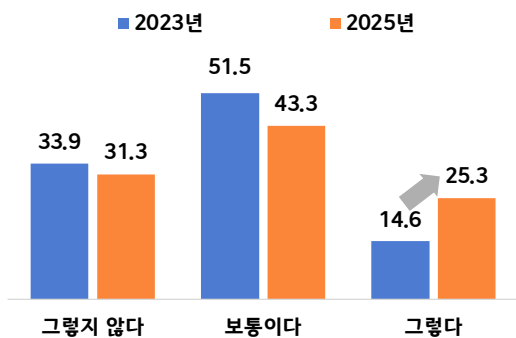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군 내 일자리 충분도에 대해 '보통이다' 응답 비율은 43.3%로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다'(31.3%), '그렇다'(25.3%) 순으로 나타남. 특히 '그렇다' 응답 비율은 2023년(14.6%) 대비 10.7%p 증가함
-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자리가 '대체로 충분하다(보통이다+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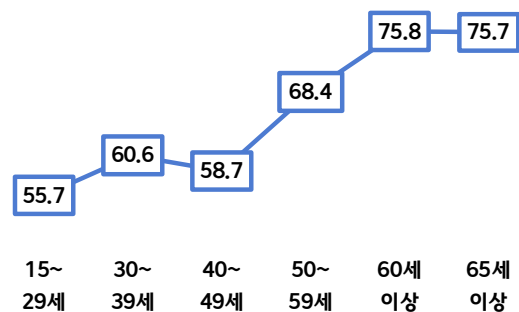
<< 일자리 충분도 >>

(단위 : %)



<< 연령별 일자리 충분도(보통이다+그렇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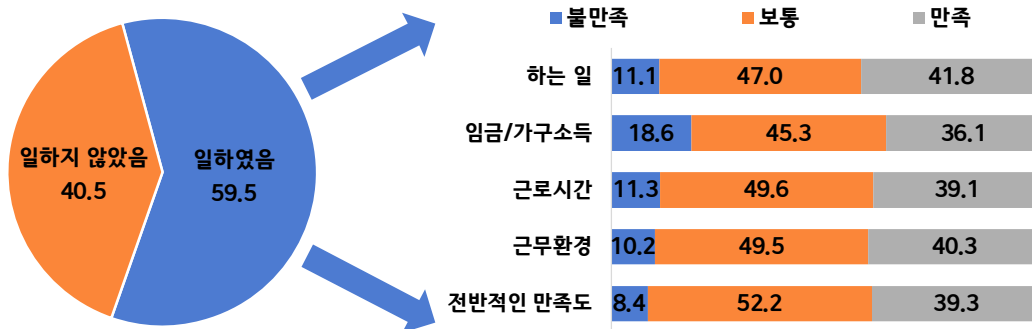
(단위 : %)



- ▶ 지난 1주일간 일을 했던 군민은 59.5%로 나타남. 이들 중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41.8%로 일자리 만족도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 일자리 만족도의 모든 항목에서 2023년 대비 '만족' 응답 비율은 증가하였고,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임금/가구소득'(36.1%)으로 2023년(27.8%) 대비 8.3%p 증가함
- ▶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건강상 어려움'(39.4%), '쉬었음'(18.9%), '육아 또는 가사'(16.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자리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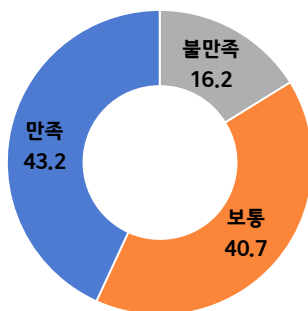
(단위 : %)



- ▶ 군내 보육 환경에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3.2%로 2023년(28.0%) 대비 15.2%p, 공교육 환경에 '만족'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1.1%로 2023년(26.6%) 대비 14.5%p 증가함
- ▶ 학교 외 교육 기회가 충분한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4.1%로 2023년(16.7%) 대비 7.4%p 증가함
- ▶ 평생교육 기회가 충분한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3%로 2023년(12.5%) 대비 6.8%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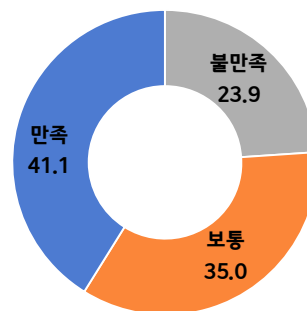
<< 보육 환경 만족도 >>

(단위 : %)



<< 공교육 환경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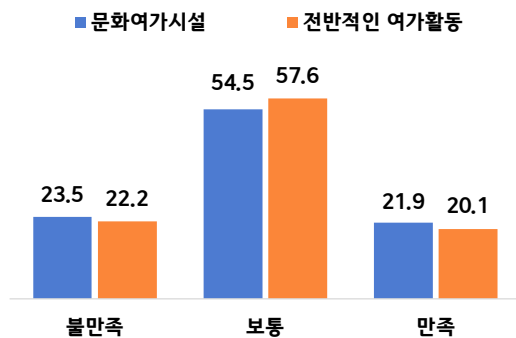
(단위 : %)



- ▶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4.5%), ‘불만족’(23.5%), ‘만족’(21.9%)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보통+만족’의 비율은 76.4%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7.6%), ‘불만족’(22.2%), ‘만족’(20.1%)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보통+만족’의 응답 비율은 77.7%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지역별의 경우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보통+만족’ 응답 비율은 북부권이 88.5%로 가장 높았고, 중부권(82.2%), 광주인근권(72.6%), 서부권(66.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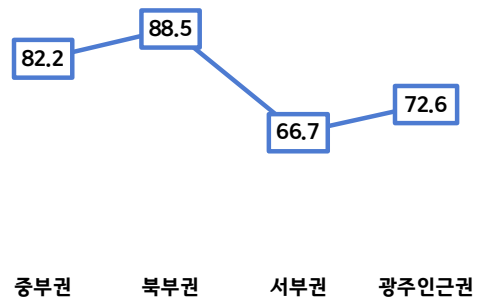
<< 여가활동 만족도 >>

(단위 : %)



<< 지역별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보통+만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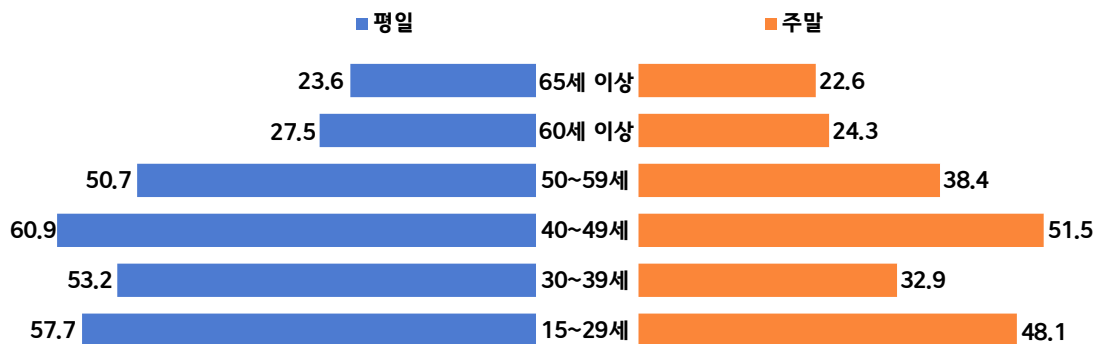
(단위 : %)



- ▶ 평일에 시간이 ‘충분하다(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군민은 58.3%, 주말에 시간이 ‘충분하다(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군민은 66.3%로 나타남
- ▶ 평일과 주말에 시간이 ‘부족하다(그렇다)’고 응답한 군민은 40~49세가 각각 60.9%, 51.5%로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은 각각 23.6%, 22.6%로 가장 낮았음
- ▶ 성별의 경우 평일에 시간이 ‘부족하다(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44.4%, 여자 38.8%였으며, 주말은 남자 34.4%, 여자 33.0%로 나타남

<< 연령별 평일, 주말 시간사용 부족(그렇다) >>

(단위 : %)



공통 항목 총괄

- ▶ 2025년 장성군의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1점, 「살고 있는 지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7.0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점씩 증가함. 반면, 「걱정 빈도」에 대해 ‘대체로 걱정하지 않음(4점 이하)’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8.8%로 전년(58.3%) 대비 9.5%p 감소했음. 이는 **군민들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환경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걱정이나 불안은 오히려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따라 복지관, 주민센터에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정신 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함
- ▶ 「교통수단 만족도」에서 ‘만족’ 응답 비율은 택시 56.8%, 시내버스/마을버스 45.8%, 시외/고속버스 45.0%로 2023년 대비 각각 6.2%p, 4.4%p, 3.6%p 증가하며 **장성군 교통 서비스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됨.** 반면 「교통환경 만족도」에서 불만족 이유로는 ‘도로폭 협소’(35.1%)와 ‘불법 주정차량’(21.5%)이 높게 나타남. 타 지역에서는 ‘도로폭 협소’ 응답률이 높았지만, 서부권은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부족’(25.3%) 응답이 ‘도로폭 협소’(13.9%)보다 높게 나타남. 이에 **서부권은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신설을 우선 추진하고, 타 지역은 도로폭이 좁은 구간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더 나아가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을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면 교통수단 만족도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 장성 군민이 생각하는 「일자리 충분도」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5.3%로 나타남.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1.3%로 더 높아, **일자리 부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았고, 30세 미만은 12.5%로 가장 낮아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일자리 부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됨. 이에 따라 **장성군 내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층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함** 한편,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량기업 투자유치’(26.2%)가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성군에서도 우량기업 투자유치에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 「교육환경 만족도」에서 보육 환경과 공교육 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각각 43.2%, 41.1%로, 2023년(28.0%, 26.6%) 대비 15.2%p, 14.5%p로 크게 증가함. 이는 **장성군에서 가족행복센터 개관을 비롯해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복지시설 확충과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 정책의 효과로 보임.** 향후 24시 돌봄어린이집 운영과 키즈레일 지역아동센터 건립이 본격화되면,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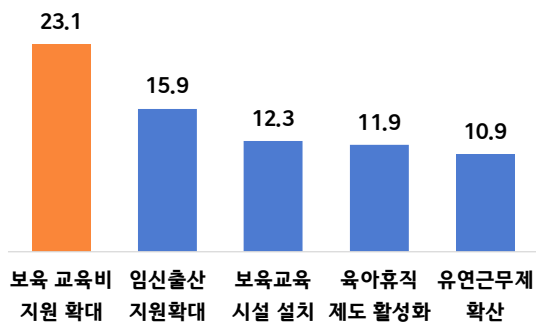
3.

전라남도 항목

- ▶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가 23.1%로 가장 높았고, '임신·출산 지원확대'(15.9%), '직장 내 보육·교육시설 설치 활성화'(12.3%) 순으로 나타남
- ▶ 이상적인 자녀 수로 '2명'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9.0%로 가장 높았고, '3명'(27.1%), '1명'(16.4%) 순으로 나타남
- ▶ 이상적인 자녀 수의 '평균'은 남자는 2.2명, 여자는 2.3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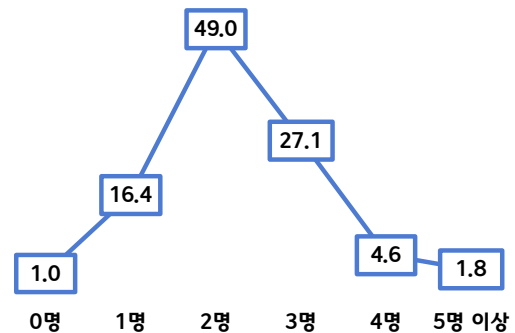
<<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상위 5개 항목) >>

(단위 : %)



<< 이상적인 자녀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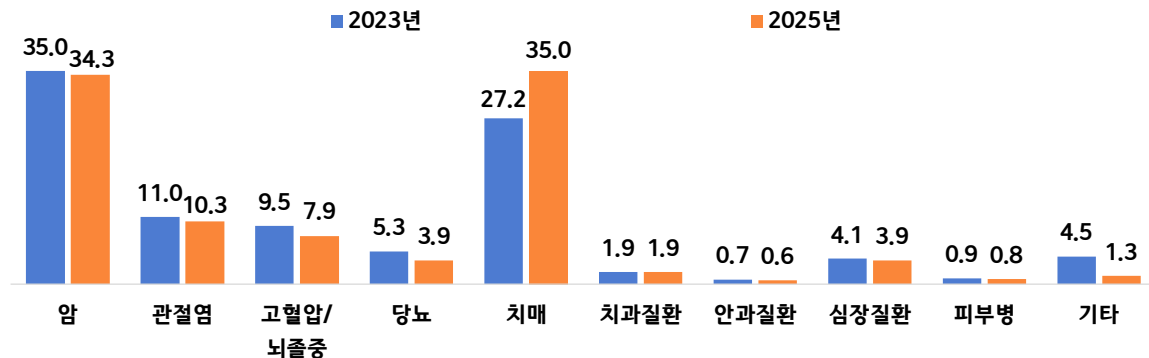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 군민이 향후 걱정하는 질환은 '치매'(35.0%), '암'(34.3%), '관절염'(10.3%)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성별의 경우 남자는 '암'(34.6%)이 여자는 '치매'(38.5%)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질병을 걱정하는 이유로 '삶의 질 저하'라고 응답한 군민은 29.0%로 가장 높았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27.2%), '의료비 부담'(23.8%)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걱정되는 질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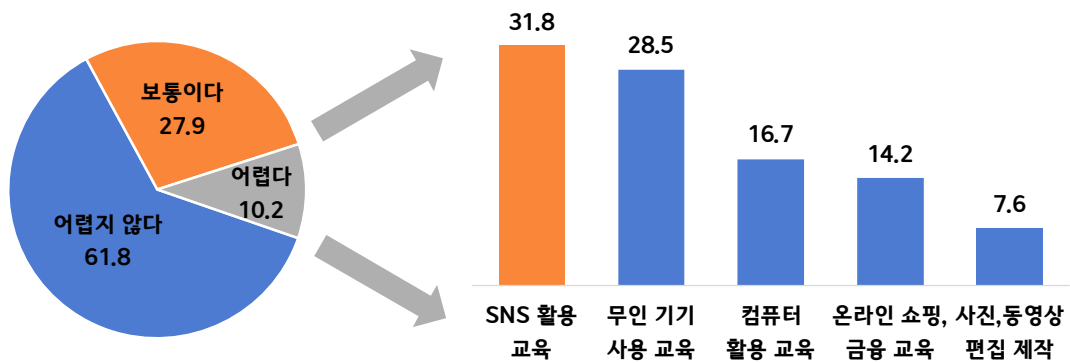
(단위 : %)



- ▶ 전자기기 사용에 대해 ‘어렵지 않다’(61.8%), ‘보통이다’(27.9%), ‘어렵다’(10.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SNS 활용 교육’(31.8%), ‘무인 기기(키오스크 등) 사용 교육’(28.5%), ‘컴퓨터 활용 교육’(1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지역별의 경우 중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은 ‘SNS 활용 교육’(32.2%, 43.9%, 37.0%)을 북부권은 ‘무인 기기(키오스크 등) 사용 교육’(43.2%)을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응답함

◀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 정도 및 필요한 교육(기타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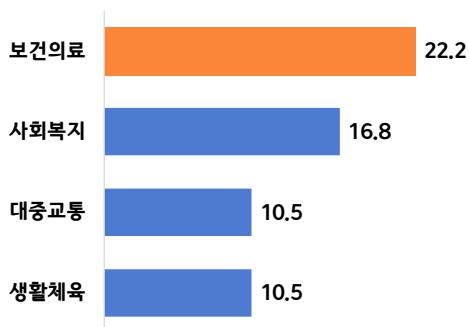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은 ‘보건의료시설’(22.2%)로 나타났고, 이어서 ‘사회복지시설’(16.8%), ‘대중교통시설’과 ‘생활체육시설’(10.5%) 순으로 나타남
- ▶ ‘대중교통시설’은 서부권(16.8%)에서 ‘생활체육시설’은 중부권(13.3%)에서 타 지역 대비 각각 4.2%p, 2.7%p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선호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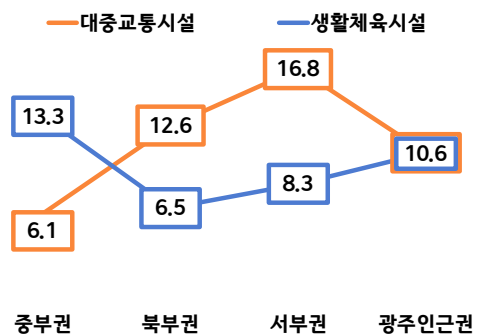
◀ 편의시설 수요(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편의시설 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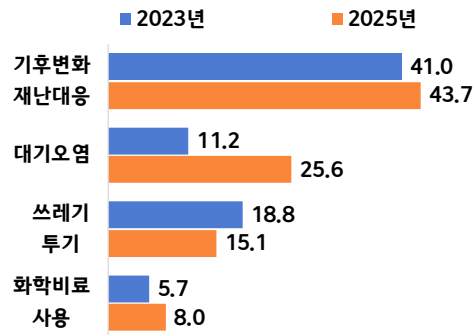
(단위 : %)



- ▶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한 환경 문제로 ‘기후변화 재난대응’이 43.7%로 가장 높았고, ‘대기오염’(25.6%), ‘쓰레기 투기’(15.1%) 순으로 나타남
- ▶ 응답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대기오염’으로 2023년(11.2%) 대비 14.4%p 증가함
- ▶ ‘기후변화 재난대응’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광주인근권(54.9%), 북부권(46.8%), 서부권(40.6%), 중부권(40.1%)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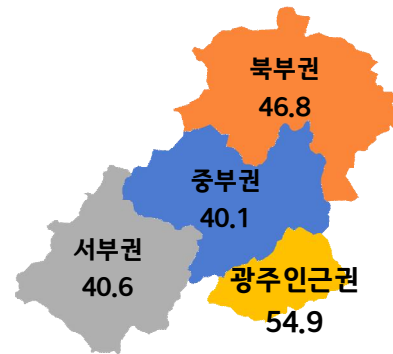
<< 연도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기후변화 재난대응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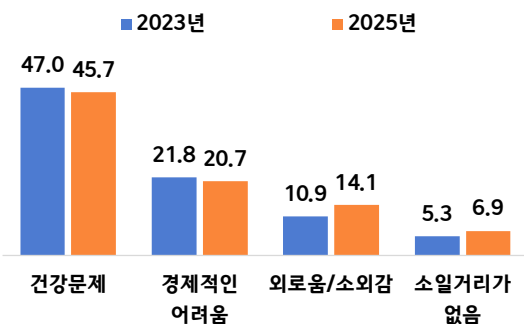
(단위 : %)



- ▶ 만 65세 이상의 군민이 응답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건강문제’(45.7%), ‘경제적인 어려움’(20.7%), ‘외로움, 소외감’(14.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지역별의 경우 ‘건강문제’라고 응답한 서부권의 비율은 50.5%로 타 지역 대비 4.6%p 이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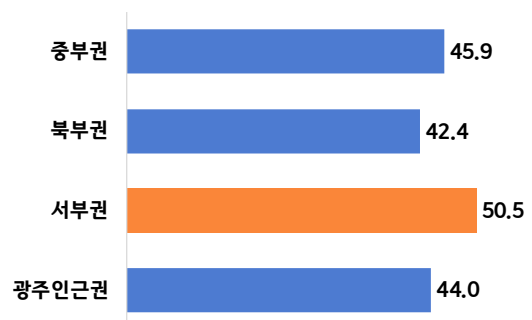
<< 연도별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

(단위 : %)



<< 지역별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건강문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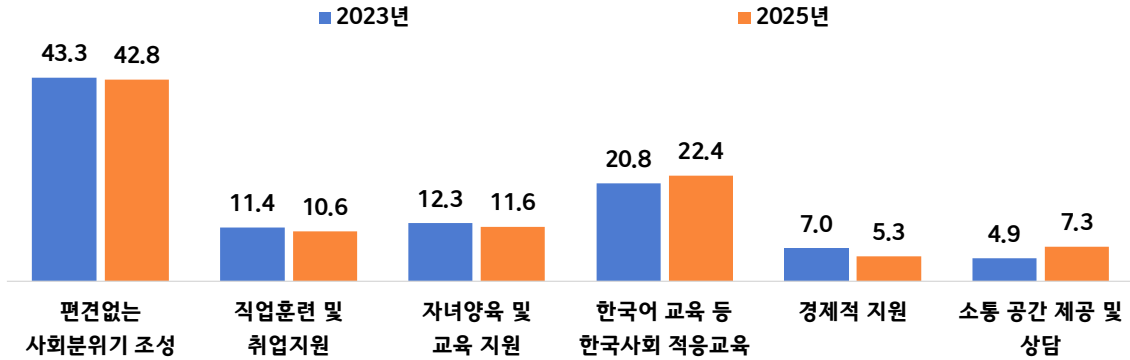
(단위 : %)



- ▶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2.8%로 가장 높았고,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교육’(22.4%),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11.6%) 순으로 나타남
- ▶ ‘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의 응답 비율은 30~39세에서 49.5%로 가장 높았음

<< 연도별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기타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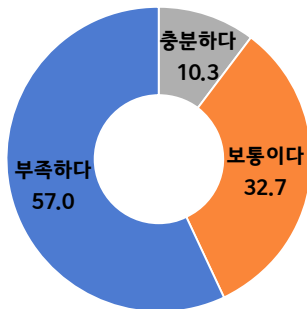
(단위 : %)



- ▶ 지난 1년간 독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50.8%로 2023년(47.6%) 대비 3.2%p 증가하였으며, 군민의 '연평균 독서량'은 2.7권으로 나타남
- ▶ 독서량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57.0%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32.7%), '충분하다'(10.3%) 순으로 나타남
- ▶ 장성 군민의 독서량이 부족한 이유는 '책을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33.8%),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2.6%), '일이나 공부가 바빠서'(22.1%)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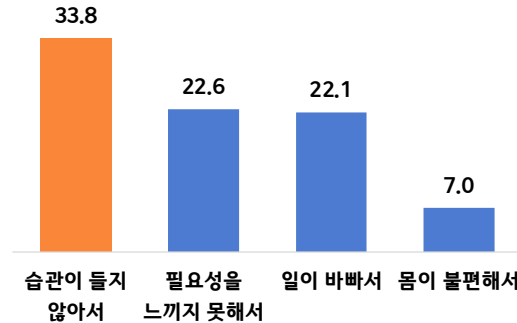
<< 독서량 만족여부 >>

(단위 : %)



<< 독서량 부족 이유(상위 4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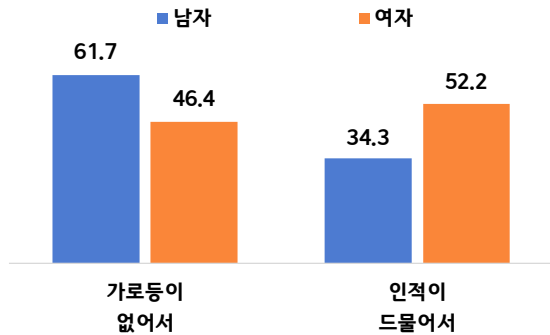
(단위 : %)



- ▶ 야간활동 안전성에 대하여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8.4%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29.7%), '불안하다'(11.9%) 순으로 나타남
- ▶ 야간활동 및 보행이 불안한 주된 원인은 '가로등이 없어서'(53.2%), '인적이 드물어서'(44.3%)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자는 '가로등이 없어서'(61.7%)를 여자는 '인적이 드물어서'(52.2%)를 주요 원인으로 응답함
- ▶ 야간활동 및 보행 불안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가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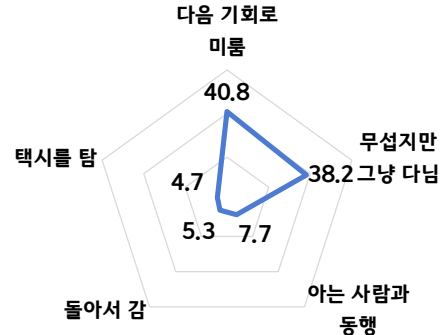
<< 성별 야간활동이 불안한 원인 >>

(단위 : %)



<< 야간활동 불안 대처방법(상위 5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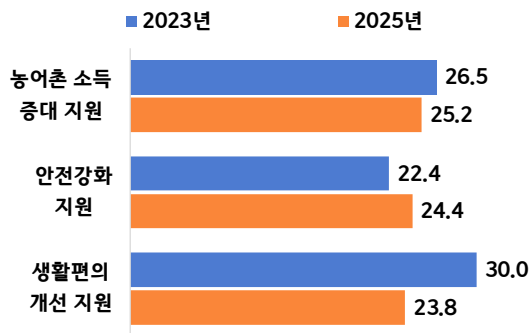
(단위 : %)



- ▶ 디지털 기술이 가장 활용되어야 할 지원사업으로는 ‘농어촌 소득증대 지원’(25.2%), 활용 분야로는 ‘사회·복지 분야’(24.1%)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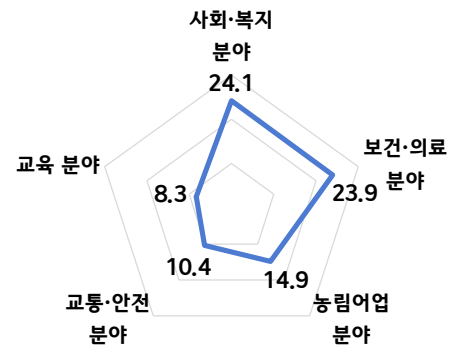
<< 연도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상위 3개 항목) >>

(단위 : %)



<< 디지털 기술 활용 분야(상위 5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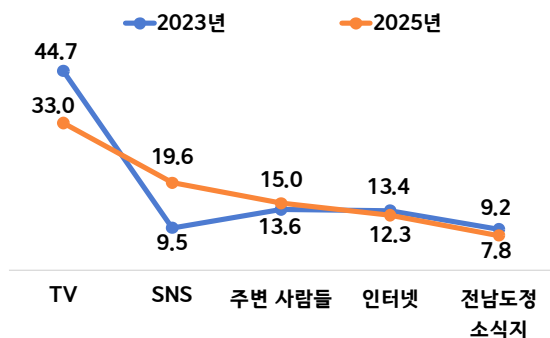
(단위 : %)



- ▶ 도정정보 습득 수단으로 ‘TV’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3.0%로 가장 높았고, 장성군 정보 습득 수단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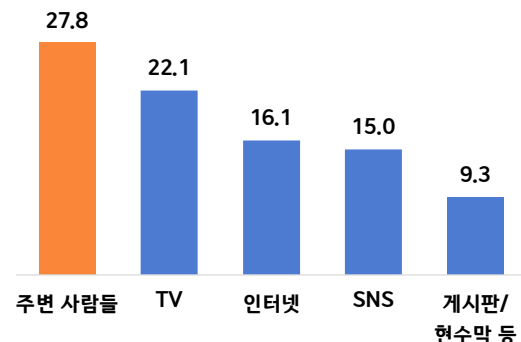
<< 연도별 도정정보 습득 수단(상위 5개 항목) >>

(단위 : %)



<< 군정 정보 습득 수단(상위 5개 항목) >>

(단위 : %)



전라남도 항목 총괄

- ▶ 향후 「걱정되는 질환」으로는 ‘치매’(35.0%)가 가장 많았고, 특히 65세 이상에서 ‘치매’(46.8%)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치매관리’(18.5%) 항목이 2023년 대비 2.7%p 증가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고령층의 정신건강 및 치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이에 따라 **장성군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치매 조기검진 확대, 치매상담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함**
- ▶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환경 문제로 ‘기후변화 재난대응’(43.7%)이 가장 높게 나타남. 최근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의 기후변화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이에 따라 **장성군에서는 마을 단위 조직을 활용한 마을순찰대 운영을 도입해 긴급 상황 시 대피 경로 안내와 위험 예찰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기적인 재난 대응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 「야간활동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군민은 58.4%로 2023년(40.9%)대비 17.5%p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야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개선됨**. 가장 큰 불안요인은 ‘가로등이 없어서’(53.2%)로 나타났으며, 특히 북부권(67.8%)과 서부권(63.9%)에서 응답률이 높았음. 야간활동 시 대처방법으로는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가 40.8%로 가장 높았고, 북부권에서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 응답률이 83.0%로 타 지역 대비 40.5%p 이상 높게 나타남. 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안을 안고 야간활동을 이어가는 군민이 많다는 점을 보여줌**. 따라서 **북부권과 서부권을 중심으로, 보행량이 많은 구역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야간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행정정보 획득 매체」에서 전라남도 도정정보 습득 수단으로 ‘SNS’(19.6%)가 2023년 (9.5%) 대비 10.1%p 증가함. 군정 정보에서도 ‘인터넷’(16.1%)과 ‘SNS’(15.0%)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장성 군민의 10.2%는 「전자기기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NS 활용 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디지털 기반 정보 접근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군민은 여전히 **전자기기 사용과 SNS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따라서 **기초적인 전자기기 사용법과 실생활 중심의 SNS 활용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장성군에서 접근성이 높은 마을회관·주민센터 등에서 1:1 맞춤형 멘토링과 소규모 교육을 실시하면 군민이 행정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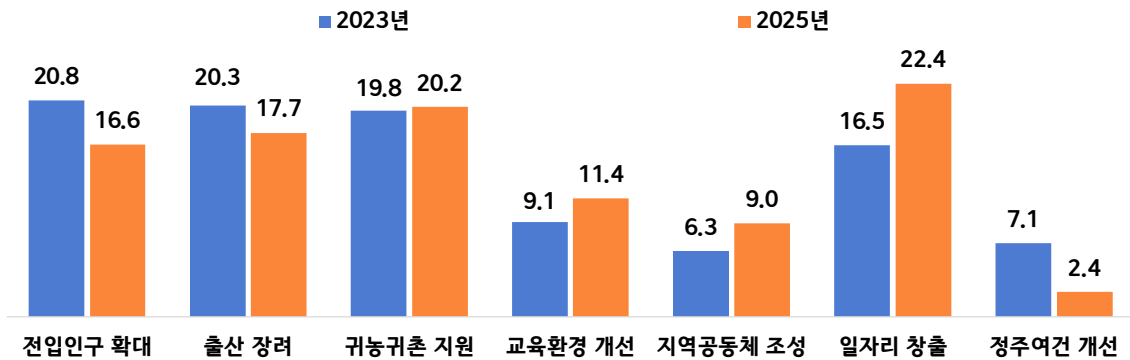
4.

장성군 특성 항목

- ▶ 인구감소 대응정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22.4%)이 가장 높았고, ‘귀농귀촌 지원’(20.2%), ‘출산 장려’(17.7%) 순으로 나타남
- ▶ 중부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22.4%), 광주인근권은 ‘출산 장려’(20.5%), 북부권과 서부권은 각각 ‘귀농귀촌 지원’(24.6%, 26.5%)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도별 인구감소 대응정책(기타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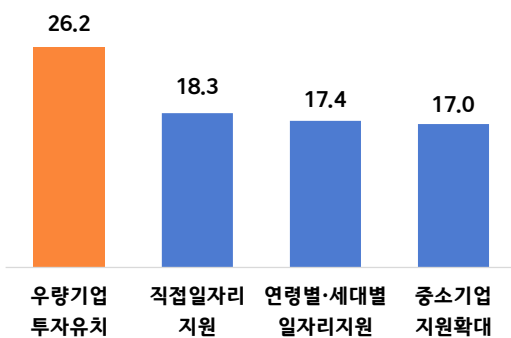
(단위 : %)



- ▶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우량기업 투자유치’가 26.2%로 가장 높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지원’(18.3%), ‘연령별·세대별 일자리 지원사업’(17.4%) 순으로 나타남
- ▶ 중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은 ‘우량기업 투자유치’(25.9%, 31.5%, 29.5%)가 가장 높았고, 북부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지원’(24.6%)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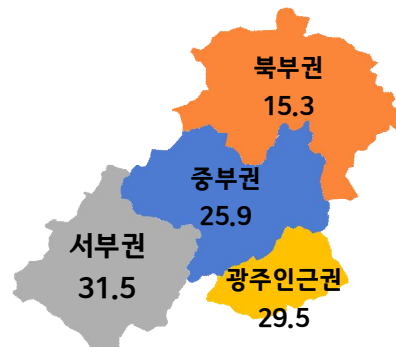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 활성화(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일자리 창출 활성화(우량기업 투자유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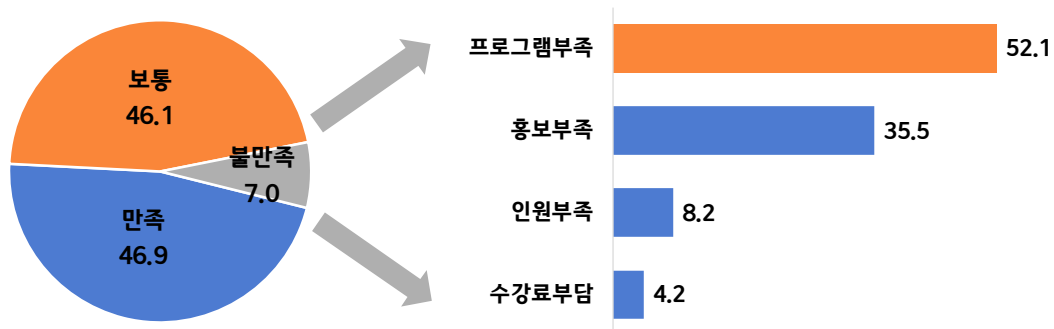
(단위 : %)



-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20.8%였으며, 이들 중 46.9%는 평생교육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함
-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불만족'(7.0%)하는 군민 중 52.1%는 '교육프로그램 부족', 35.5%는 '프로그램 일정 등 홍보 부족'을 주요 불만족 이유로 응답함
-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미참여'(79.2%)한 군민 중 45.1%는 '관심 부족'을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응답함

<< 평생교육제도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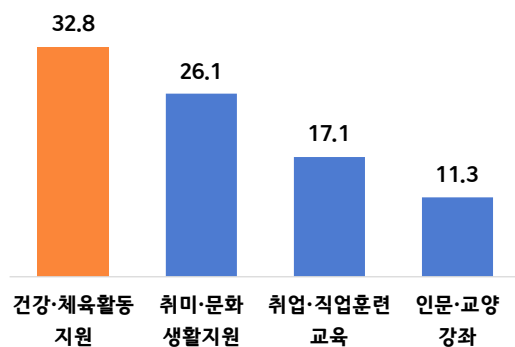
(단위 : %)



- ▶ 향후 받아보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체육 활동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8%로 가장 높았고, '취미·문화생활 지원'(26.1%), '취업·직업훈련 교육'(17.1%) 순으로 나타남
- ▶ '취업·직업훈련 교육'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건강·체육활동 지원'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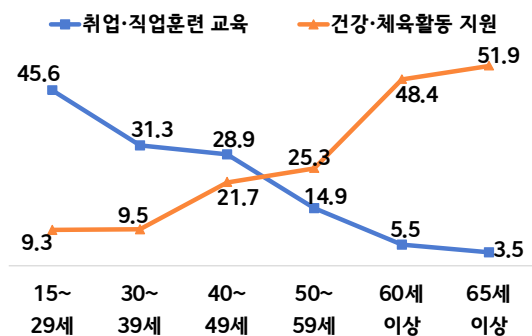
<< 평생교육제도 선호도(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평생교육제도 선호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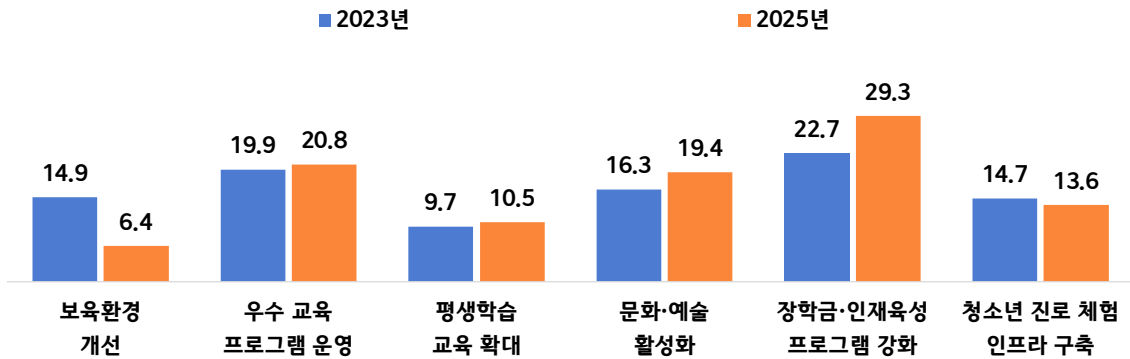
(단위 : %)



-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장학금·인재육성 프로그램 강화'(29.3%), '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20.8%), '문화·예술 활성화'(19.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보육환경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5.3%, 여자 7.5%로 나타남

<< 연도별 교육환경 개선(기타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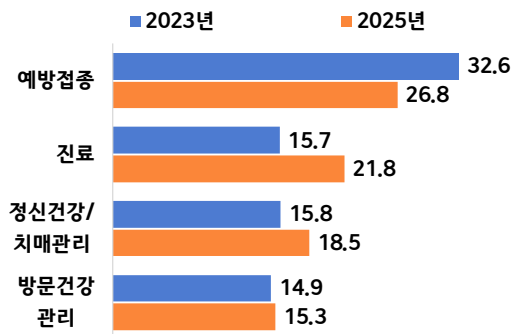
(단위 : %)



- ▶ 보건소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의료서비스로 ‘예방접종’이 26.8%로 가장 높았고, ‘진료’(21.8%), ‘정신건강/치매관리’(18.5%) 순으로 나타남
- ▶ 응답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진료’로 2023년(15.7%) 대비 6.1%p 증가한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은 ‘예방접종’으로 2023년(32.6%) 대비 5.8%p 감소함
- ▶ ‘예방접종’과 ‘진료’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방문건강 관리’와 ‘정신건강/치매관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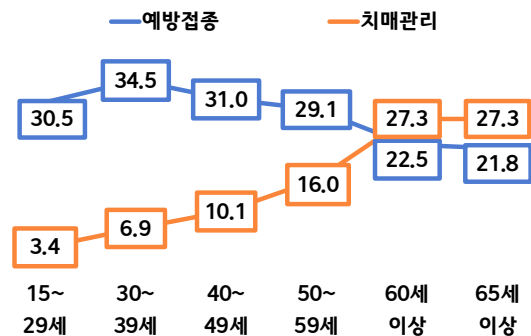
<<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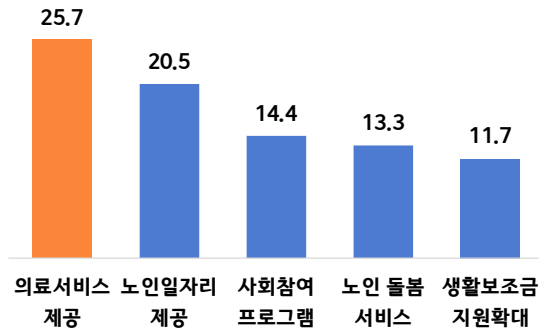
(단위 : %)



- ▶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25.7%로 가장 높았고, ‘노인 일자리 제공’(20.5%), ‘여가활동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14.4%) 순으로 나타남
- ▶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노인 돌봄 서비스’(13.3%)로 2023년(9.6%) 대비 3.7%p 증가하였고, 가장 크게 감소한 항목은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14.4%)로 2023년(21.0%) 대비 6.6%p 감소함
- ▶ 65세 이상 군민은 ‘의료서비스 제공’(24.8%), ‘노인 일자리 제공’(20.5%), ‘노인 돌봄 서비스’(17.0%) 순으로 높게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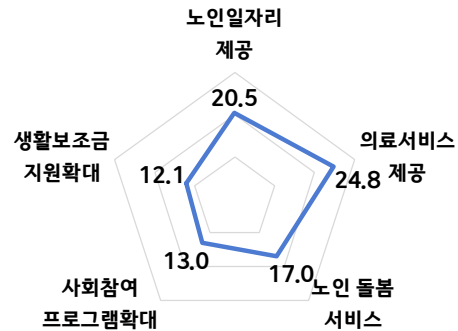
<< 노인복지 정책(상위 5개 항목) >>

(단위 : %)



<< 65세 이상 노인복지 정책(상위 5개 항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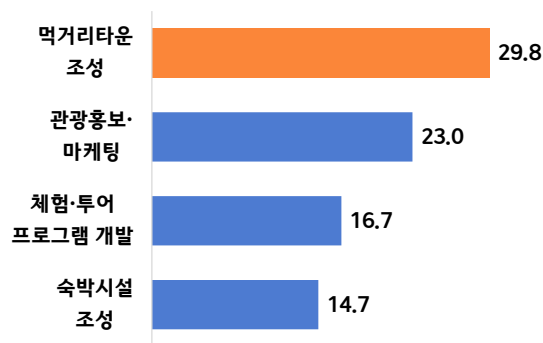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군의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먹거리타운 조성’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9.8%로 가장 높았고, ‘관광 홍보·마케팅’(23.0%), ‘체험·투어 프로그램 개발’(16.7%), ‘숙박시설 조성’(14.7%) 순으로 나타남
- ▶ 지역별의 경우 중부권에서 ‘먹거리타운 조성’ 응답률이 31.9%로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 ▶ 성별의 경우 ‘먹거리타운 조성’ 응답률이 여자(31.2%)가 남자(28.6%) 대비 2.6%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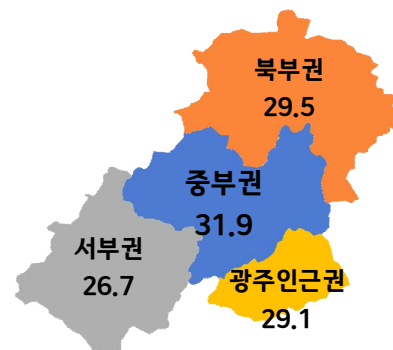
<< 관광 활성화 방안(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관광 활성화 방안(먹거리타운 조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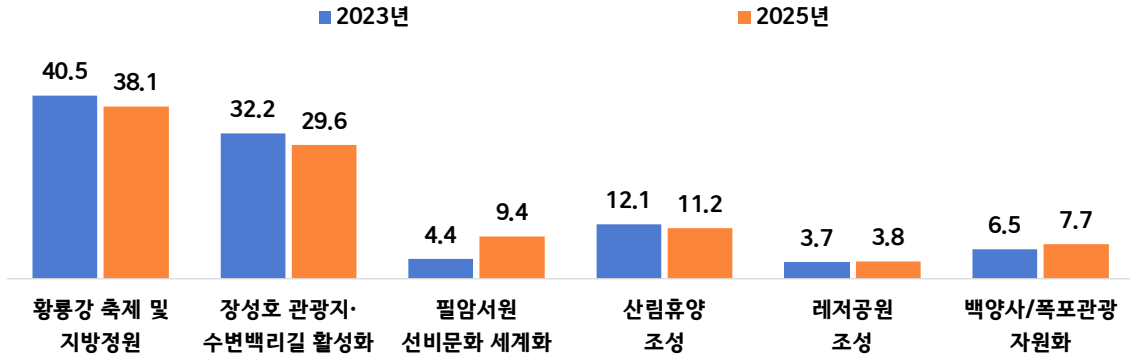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군이 추진하는 관광사업 중 가장 기대되는 관광사업은 ‘황룡강 축제 및 황룡강 지방정원’(38.1%)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장성호 관광지·수변백리길 활성화’(29.6%), ‘산림휴양지 조성’(11.2%) 순으로 나타남
- ▶ ‘레저공원 조성’ 응답률은 15~29세가 7.7%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황룡강 축제 및 황룡강 지방정원’의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연도별 기대되는 관광사업(기타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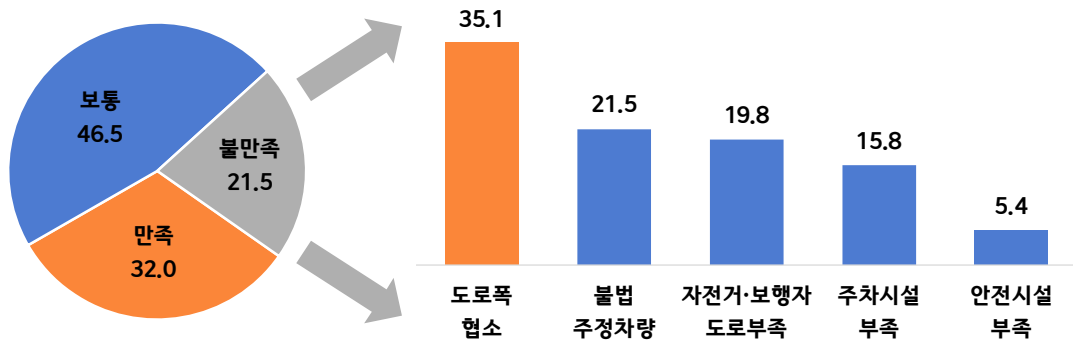
(단위 : %)



- ▶ 교통환경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2.0%로 2023년(27.5%) 대비 4.5%p 증가함
- ▶ '불만족'(21.5%) 응답자 중 35.1%는 '도로폭 협소'를 교통환경에 대한 주요 불만족 이유로 응답함

<< 교통환경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기타 제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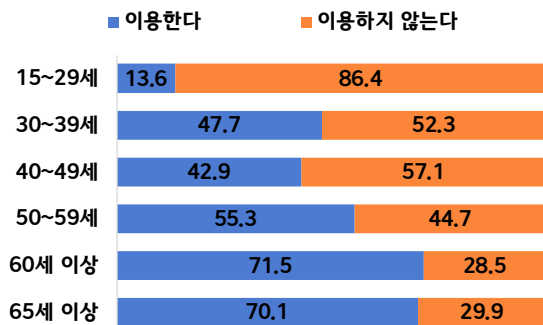
(단위 : %)



- ▶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3.9%로 이들 중 42.3%는 '다양하지 않은 물품'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응답함.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이용률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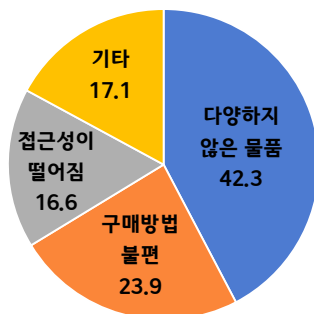
<< 연령별 전통시장 이용 실태 >>

(단위 : %)



<<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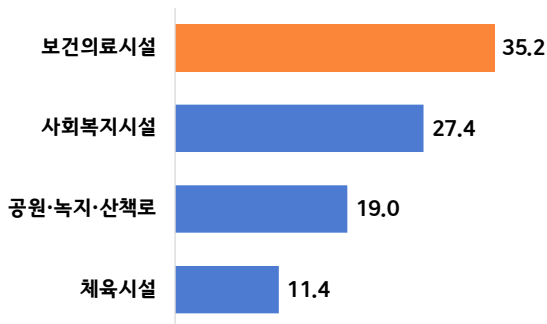
(단위 : %)



-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35.2%)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시설’(27.4%), ‘공원·녹지·산책로’(19.0%) 순으로 나타남
- ▶ 북부권에서의 ‘보건의료시설’ 응답률은 48.5%로 타 지역 대비 11.9%p 이상 높게 나타남
- ▶ ‘사회복지시설’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체육시설’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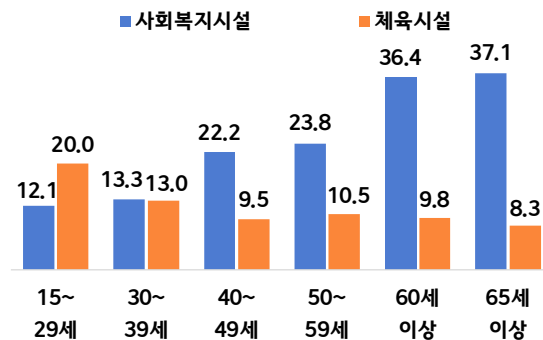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상위 4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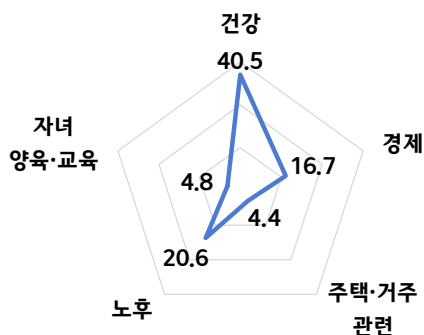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 군민이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건강’(40.5%)이 가장 높았고, ‘노후’(20.6%), ‘경제’(16.7%) 순으로 나타남
- ▶ ‘취업’과 ‘학업·진학’은 15~29세가 타 연령대 대비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건강’과 ‘노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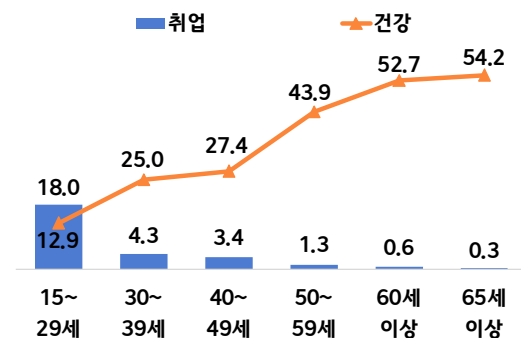
<< 주요 생활 관심사(상위 5개 항목) >>

(단위 : %)



<< 연령별 취업과 건강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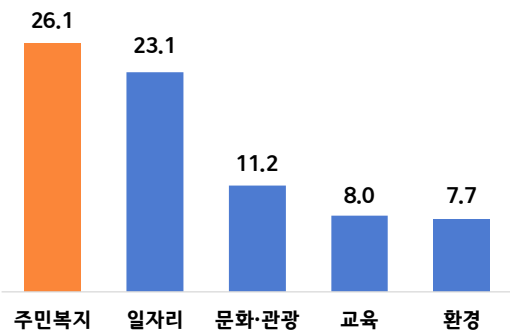
(단위 : %)



- ▶ 군정 관심 분야로 ‘주민복지’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6.1%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23.1%), ‘문화·관광’(11.2%) 순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일자리’로 2023년(17.1%) 대비 6.0%p 증가함
- ▶ 중부권에서는 ‘일자리’(25.8%) 응답률이 ‘주민복지’(23.3%)보다 높았으나, 타 지역에서는 ‘주민복지’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남
- ▶ 성별 응답률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주민복지’로 남자가 24.9%, 여자가 27.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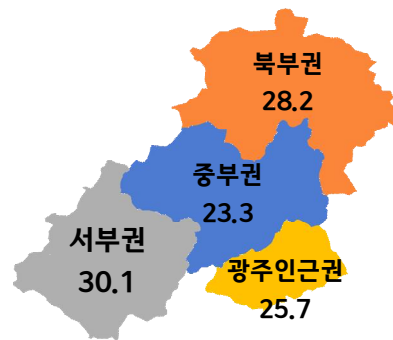
<< 군정 관심 분야(상위 5개 항목) >>

(단위 : %)



<< 지역별 주민복지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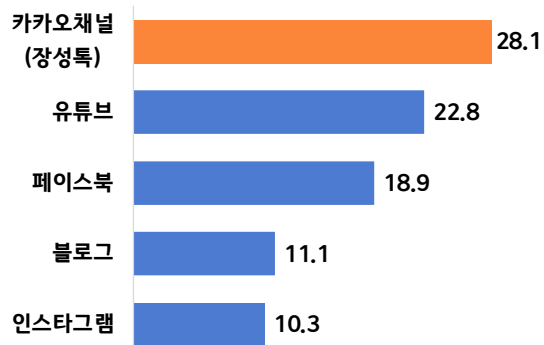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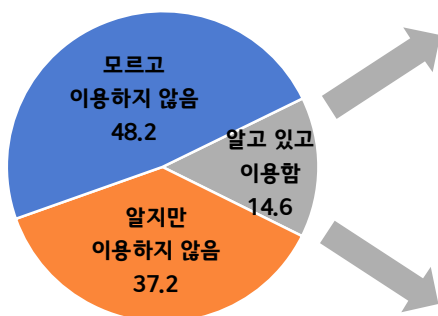
(단위 : %)



- ▶ 장성군 공식 SNS를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군민은 14.6%로 나타남.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37.2%)의 응답률은 2023년(24.2%) 대비 13.0%p 증가함
- ▶ 공식 SNS를 이용하고 있는 군민 중 28.1%는 ‘카카오채널(장성톡)’, 22.8%는 ‘유튜브’, 18.9%는 ‘페이스북’을 공식 SNS로 이용한다고 응답함
- ▶ 15~29세는 ‘페이스북’(32.5%)을, 30~39세는 ‘블로그’(23.9%)를, 50~59세는 ‘유튜브’(40.8%)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카카오채널’을 가장 많이 응답함

<< 장성군 공식 SNS 인지 여부 및 이용하는 공식 SNS >>

(단위 : %)



장성군 특성 항목 총괄

- ▶ 장성군의 「세대 및 인구」에서 ‘세대’ 수는 23,170세대로 전년 대비 230세대 감소했고, ‘주민등록인구’(42,026명) 또한 전년 대비 517명 줄어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임. 한편 군민은 「인구감소 대응정책」으로 중부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22.4%), 광주인근권은 ‘출산 장려’(20.5%), 북부권과 서부권에서는 ‘귀농귀촌 지원’이 각각 24.6%,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여줌. 따라서 **장성군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각각 기업을 유치하고 필요시 임대료 감면, 출산용품 지원, 초기 정착 비용 지원금 지급 등의 맞춤형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 「평생교육제도 만족도」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6.9%로 2023년(37.6%) 대비 9.3%p 증가하였음. 그러나 실제 ‘참여한 적 있다’는 응답은 20.8%로 **여전히 낮은 참여율을 보임**.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관심 부족’(45.1%)이 가장 높았고, 「평생교육제도 선호도」에서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취업·직업훈련 교육’,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연령별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실버 요가나 건강체조, 청년을 위한 취업 특강이나 진로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건강문제’(45.7%)와 ‘경제적인 어려움’(20.7%)이 가장 높게 나타남. 우선 추진이 필요한 「노인복지 정책」으로는 ‘의료서비스 제공’(25.7%)과 ‘노인 일자리 제공’(20.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65세 이상에서도 동일하게 ‘의료서비스 제공’(24.8%)과 ‘노인 일자리 제공’(20.5%)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고령층이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서비스 확대를, 경제적인 어려움 완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제공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줌**.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이동형 무료 건강검진을 운영하고, 현재 장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고령층의 건강증진과 사회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함**
- ▶ 장성군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으로는 ‘먹거리타운 조성’ 29.8%, ‘관광 홍보·마케팅’ 23.0%이 높은 응답률을 가짐. 「기대되는 관광사업」으로는 ‘황룡강 축제 및 황룡강 지방정원’이 38.1%로 가장 높았음. 따라서 군민이 가장 기대하는 **황룡강 축제에서 장성군 지역 농민들과 협업하여 신선한 지역 특산물을 공급받아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장성군 공식 SNS」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카카오톡(장성톡)’(28.1%)과 ‘유튜브’(22.8%)를 활용해 **황룡강 축제의 볼거리와 먹거리 콘텐츠를 적극 홍보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